

상상의 서사화 - 「무정」론*

강현국**

1. 서론
 2. 두 별의 서사
 3. 사건서술과 내면서술
 4. 지양과 통합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이 글은 이광수의 『무정』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다. 『무정』처럼 선행 연구가 충분히 누적된 본문(text)을 재론하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문을 겹겹이 감싼 기존의 논의들이 본문에 대한 직접 대면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공고해진 선입견은 인습적 이해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 경우 새로운 논의는 가외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본문을 그 자체로서 기술하고 분석하자면 선행 연구의 중압을 버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불리 전개되는 논의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재확인하거나 되풀이하는 차원에 머물 위험이 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고려대학교 신임교수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선행 연구의 부담 말고도 『무정』을 논의하는 데 의식해야 할 다른 문제가 더 있다. 그 문제는 문학사에서 『무정』이 차지하는 특수한 자리로부터 기인한다.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면 『무정』은 “단순히 시간적 위치만으로도 소설사의 한 결절점에 놓여 있다.”¹⁾ 『무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대부분이 그 성격상 문학사 연구에 편중된 까닭은 그 ‘결절점’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다. 『무정』을 두고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서의 적부를 가리려는 논의는 자연스럽게 문학사적 평가의 한 심급을 담당한다. 논의의 방향이 문학사를 전제로 한 자격 심사를 지향할 때 본문을 이루는 요소들에 대한 선택적인 주목과 강조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본문의 요소들이 문학사를 인식하는 준거의 타당성을 증빙하기 위해 복무하게 된다. 문학사에서 본문의 좌표를 정하고 의미화하는 일이 본문을 유기적 전체로서 기술하고 분석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전도가 초래되는 것이다. 『무정』을 대상으로 한 문학사 연구들은 대체로 그러한 전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문학사에서 『무정』이 놓인 자리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초래된 현상이다. 그러나 『무정』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그것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아예 무관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무정』은 문학사에 기댔을 때 비로소 『무정』다울 수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학사를 전제로 『무정』의 근대소설 여부를 판정하려 할 때 본문 자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문학사를 배제하고 수행되는 『무정』에 대한 논의 또한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본문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는 『무정』을 검토하는 논의가 충족시켜야 할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무정』에 대한 현 단계의 글쓰기는 방대하게 누적된 선행 연구의 중압을 버티면서 문학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글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자의식으로부터 논의의 세부를 마련한다. 본론

1) 서영채, 『<무정>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1면.

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이 다루는 문제는 선행 연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점검과 반성으로부터 설정된 것이다. 우선 『무정』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본론의 첫 부분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무정』이 영채 중심의 서사진행선과 형식 중심의 서사진행선을 두 개의 기본 축으로 삼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이다.²⁾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그 두 서사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에 그친다. 각 서사의 내적인 구성 방식을 해명하는 수준까지 분석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어떤 두 항목이 비교될 때 각 항목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두 항목 사이의 차이를 온전히 해명하자면 상호 비교되는 양자가 개별적으로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마땅히 수반되어야 한다. 『무정』의 경우 영채 중심의 서사와 형식 중심의 서사는 매일신보 연재 85회분까지는 각각 고유한 방식에 의해 조직된다. 그 두 줄기의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전소설의 서사유형에 비추어 『무정』의 서사 구성 원리를 밝히려 한 연구가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 연구에 따르면 『무정』 전반부의 서사는 영채 중심의 서사와 형식 중심의 서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삼각관계의 양상을 띠는데 고전소설의 서사유형과 비교할 때 전자는 애정소설의 혼사장애큐, 후자는 영웅소설의 혼사장애큐를 구현한다. 고전소설의 계보로 파악되는 그들 두 서사가 충돌하면

2) 이와 관련하여 김열규와 김경수의 언급을 참고로 인용한다. “『무정은 (···) 크게 보아서 두 가닥의 이른바, ‘스토리 라인’을 향유하고 있다. 하나는 형식과 영채 사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과 선행 사이의 것이다.”; “말하자면 『무정』은, 비록 표면상으로는 형식의 성장담이라는 큰 흐름 속에 영채와 병욱 및 선행의 정신적 성장담이 함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상은 주로 형식과 영채의 성장과장 자체를 동시에 문제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김열규, 『이광수 문학의 문법: 담화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국학자료원, 1994), 103면;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집탈』,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탐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편(세미, 2000), 124면.

서 빚어지는 삼각관계는 『무정』의 후반부에서 전통과 근대 혹은 당위와 욕망의 대결에 의한 삼각관계로 치환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무정』은 고전소설과 결별한다는 것이다.³⁾ 그러한 연구는 그 동안 단편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던 고전소설과 『무정』의 관계를 치밀하고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서사의 면에서 고전소설과 『무정』 사이의 상사와 변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무정』의 서사 구성 원리를 밝혔다고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문학사에서 벌어지는 변천의 한 맥락으로 본문을 파악하려는 연구 시각에 의해 『무정』의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이 일정 국면 드러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 성과는 다른 방법론과 시각을 빌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본론의 둘째 부분에서 영채의 서사와 형식의 서사에 대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담론의 수행 양상을 검토한다. 사건들의 연속체인 서사를 본문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일컬어 담론이라고 하는데 『무정』의 담론은 사건의 서술이나 인물 묘사 등에 있어서 영채 부분과 형식 부분으로 그 수행 양상이 갈라진다. 그러한 차이를 통해 『무정』과 고전소설의 거리가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의 셋째 부분에서는 『무정』의 전체에서 연재분 86회 이후가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를 검토한다. 병옥의 등장으로 영채가 자살 결심을 포기하면서 『무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국면 전환은 선행 연구를 통해 누차 주목되었으며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다. 86회 연재분에서 작가가 사건 전개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대목을 고전소설의 연장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병옥의 등장 이후 부분이 급조된 것이며 사족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⁴⁾ 그에 반

3) 서영채, 앞의 글, 8-18면.

4) 김윤식은 86회 연재분이 “가장 근대소설답지 않게, 즉 전형적 고대소설의 방식인 ‘각설...’하는 전환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하며 김동인은 병옥이 연재 도중 급

해 이 글은 문제의 그 86회가 바로 『무정』이 근대소설로 전이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검증될 것이다.

2. 두 별의 서사

『무정』의 전반부에서 영채의 서사와 형식의 서사는 서로 병렬하거나 교차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형성한다. 하나의 사건을 양쪽의 서사들이 공유하는가 하면 한 쪽 서사의 사건이 다른 쪽 서사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것처럼 서로 관계하면서 진행되는 그들 두 서사는 내적으로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영채의 서사와 형식의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을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서사를 구성하는 단위 사건을 가리켜 흔히 단락이라고 부른다. 관례상 단락은 통사체로 표시된다. 가령 ‘영채는 박진사의 딸이다’ 같은 문장은 영채의 서사를 구성하는 한 단락이 된다. 것처럼 통사체로 표시된 단락은 ‘영채는 / 박진사의 딸이다’는 식으로 다시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뉜다. 단락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분절하여 그것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살핀다면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의 일정 국면을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단락의 주어부는 서사의 중심인물로 고정된다. 영채의 서사에서 단락들의 주어부는 모두 영채가 된다. 따라서 각 단락의 성격은 영채와 결합하는 서술부에 의해 규정된다. 『무정』의 전반부에서 영채의 서사를 구성하는 단락들의 주어부와 서술부가 결합되는 양상은

조된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서영채는 “『무정』 후반부는 전체의 서사구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한낱 사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고 하며 류철균도 죽은 영채가 부활하는 것이 “『무정』을 파탄으로 몰고간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김윤식, 앞의 책, 47면; 김동인, 김동인 평론전집, 김치홍 편(삼영사, 1984), 99면; 서영채, 앞의 글, 37면; 류철균, 『육망의 근대적 형식』, 문학과 사회 1992, 봄, 307면.

다음과 같다.

| 주어부 | 서술부 |
|-----|---|
| 영채 | 1)박진사의 딸이다. 2)형식과 정혼한 사이이다. 3)(박진사가 무고한 누명을 쓰고 수감되자)형식과 헤어진다. 4)친척집에 맡겨져 구박을 받으며 지낸다. 5)박진사를 찾아 가기 위해 친척집을 나온다 6)박진사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다(그 때문에 박진사가 자살한다) 7)형식에 대한 절의를 지킨다 8)형식과 재회한다 9)배명식과 김현수에게 겁간을 당한다 10)자살하기 위해 형식을 떠난다 |

위의 표에 열거된 서술부들은 동일한 주어부인 영채와 개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씩 단락을 구성한다. 주어부가 일정하기 때문에 서술부가 교체되면 새로운 단락이 형성된다. 서술부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단락을 이루며 서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한편 주어부가 동일하므로 단락의 속성은 서술부에 의해 규정된다. 위의 표에서 서술부들은 그 속성상 상태와 동작으로 구분된다. 1) 2) 4) 7)은 상태에, 3) 5) 6) 8) 9) 10)은 동작에 해당한다. 서술부의 속성으로 단락들을 표시하여 배열하면 ‘상태-상태-동작-상태-동작-동작-상태-동작-동작-동작’이 된다.

단락들의 속성에 이어서 그러한 속성들의 접속에 개입하는 논리를 파악한다면 영채의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채의 서사에서 단락들이 접속되는 논리는 두 가지로 파악된다. 이 글은 그 두 논리를 지칭하기 위해 연접과 이접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연접이 동질적인 단락들 간의 접속이라면 이접은 서로 모순되거나 이질적인 단락들 간의 접속이다. 기존의 사태

는 연접에 의해 연속되거나 심화되는 데 반해 이점에 의해 전환되거나 부정된다. 영채의 서사에서 연접과 이점의 논리는 규칙적으로 교체된다. 1)과 2)는 영채의 행복한 삶이 지속되는 국면들에 해당하므로 연접의 논리로 접속된다. 3)은 2)에 대한 부정으로서 양자의 접속은 이점이 된다. 박진사가 무고한 혐의로 수감되자 영채의 행복한 삶이 부정되는 것이다. 3)의 불행은 4)에서 지속된다. 따라서 3)과 4)는 연접이다. 5)에서 영채가 친척집에서 나오는 것은 4)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므로 4)와 5)는 이점이다. 5)의 행동은 6)에서 영채가 박진사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5)와 6)은 연접되는 것이다. 7)은 기생의 신분을 부정하는 태도이므로 6)에 대해 이점이다. 영채가 지킨 절의는 형식과의 재회로 이어짐으로 8)은 7)에 연접된다. 9)는 영채와 형식의 결합을 부정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8)과 9)는 이점이다. 10)은 9)를 부정하려는 행동이므로 양자는 이점의 논리로 접속된다. 영채는 겁간에 의해 정조를 잃은 사태를 현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다. 연접을 ‘^’로 이점을 ‘v’로 대신하여 단락들의 접속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wedge 2\vee 3\wedge 4\vee 5\wedge 6\vee 7\wedge 8\vee 9\vee 10$$

상기한 배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와 10)의 접속을 예외로 한다면 단락들은 연접과 이점의 규칙적인 교대를 통해 접속된다. 이제 그러한 접속 논리와 단락들의 속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각 단락을 속성으로 치환하여 다시 배열한다.

$$\begin{array}{ccccccc} \text{상태}\wedge\text{상태}\vee\text{동작}\wedge\text{상태}\vee\text{동작}\wedge\text{동작}\vee\text{상태}\wedge\text{동작}\vee\text{동작}\vee\text{동작} \\ \text{상태} & & & & & & \text{동작} \end{array}$$

밑줄 부분은 같은 속성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상태나 동작의 연속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그 각각을 상태와 동작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begin{array}{c} \text{상태} \vee \text{동작} \wedge \text{상태} \vee \text{동작} \vee \text{상태} \wedge \text{동작} \vee \text{동작} \vee \text{동작} \\ \wedge \qquad \qquad \qquad \wedge \end{array}$$

단락들의 속성과 그것들의 접속 논리로부터 동일성을 파악하여 정리하면 처음보다 배열이 간소해진다. 그러한 간소화의 절차는 최소 형태의 배열에 나타나는 수준까지 계속 수행될 수 있다. 위의 배열에서 밑줄 부분들은 이접(\vee)과 이접(\vee)이 연속된다. 이접과 이접은 부정의 부정이므로 연결(\wedge)이 된다. 그로써 더 간소한 형태의 배열을 얻을 수 있다.

$$\begin{array}{c} \text{상태} \vee \text{동작} \wedge \text{상태} \wedge \text{상태} \wedge \text{동작} \wedge \text{동작} \\ \text{상태} \qquad \qquad \text{동작} \end{array}$$

밑줄 부분들은 동일 속성들의 연결이므로 각각 상태와 동작으로 묶인다. 속성들 간의 동일성 대신 접속 논리에서 동일성을 파악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온다. 즉 ‘상태 \vee 동작 \wedge 상태 \wedge 상태 \wedge 동작 \wedge 동작’의 배열에서 밑줄 부분은 연결(\wedge)과 연결(\wedge)의 연속이므로 그 결과는 연결(\wedge)이다. 연산법칙에 따르면 이접끼리의 접속이나 연결끼리의 접속은 모두 연결이다. 단락들의 속성과 접속 논리 중 어느 쪽에서 동일성을 파악하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일정하다.

$$\begin{array}{c} \text{상태} \vee \text{동작} \wedge \text{상태} \wedge \text{동작} \\ \wedge \end{array}$$

위의 배열 형태는 ‘상태 \vee 동작 \wedge 동작’으로 간소해지고 그것은 다시

속성들 간의 동일성에 의해 ‘상태∨동작’이라는 최소 접속으로 귀착된다. 이 글은 지금까지 영채의 서사를 이루는 단락들의 속성과 접속 논리에서 동일성을 조사하여 최소 접속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 전개를 역전시키면 영채의 서사가 구성되는 과정이 된다. ‘상태∨동작’이 연접과 이접 논리에 따라 분화되고 확장되면서 서사가 구성되는 것이다.

최소 접속인 ‘상태∨동작’에서 ‘상태’ 항목은 단락 1)과 2)의 연접을 간소화한 것으로 그 두 단락은 모두 영채가 박진사의 딸로서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에 해당한다. 행복의 상태에 이접되는 동작은 행복의 부정으로서 불행이다. 따라서 ‘상태∨동작’은 ‘행복-불행’으로 충당되는 ‘텅 빈 의미체(*le sens vidé*)’로 파악된다.⁵⁾ 영채의 서사에서 3) 이후의 단락들은 ‘상태∨동작’의 동작 항목을 전개한 것이다. 그 항목이 내포하는 그대로 단락 3) 이후의 사건들은 불행이 연속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불행을 지향하는 서사의 흐름 속에서 영채의 삶은 전락한다. 한편 ‘행복-불행’은 영채의 서사에 고유한 의미 구조로 볼 수 없다. ‘행복-불행-행복’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서사유형의 하나라는 사실이 일찍부터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행복-불행’이 그러한 서사유형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영채의 서사와 고전소설의 관계에 주목한 기존 논의의 타당성은 재확인된다.

지금까지 영채의 서사를 대상으로 하던 방식에 준하여 형식의 서사를 검토하기로 한다. 영채의 서사를 통해 단락들의 속성과 그것들 간의 접속 논리를 분석하는 절차가 이미 자세히 전개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그 결과만 제시하여 논의의 반복을 피하기로 한다. 우선 『무정』의 전반부에서 형식의 서사를 이루는 단락들의 주어부와 서술부는 다

5) ‘텅 빈 의미체(*le sens vidé*)’는 본문의 의미 작용을 가능케 하는 어떤 바탕이나 틀을 지칭하기 위해 바르트가 비평과 진실에서 제출한 개념이다. Roland Barthes, *Critique et Vérité*, Paris: Seuil, 1966, pp.57-69.

음과 같이 열거된다.

| 주어부 | 서술부 |
|-----|---|
| 형식 | 1)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경성학교 영어교사이다. 2)선형의 가정교사가 된다. 3)어릴 적 정혼한 영채와 재회한다. 4)영채의 신분에 대해 상상한다. 5)영채가 집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6)자살하러 떠난 영채의 시신을 찾으려다 포기한다 7)광대한 우주에 대해 상상한다. 8)선형과 약혼한다. |

형식의 출생과 성장과정은 『무정』에서 매우 소략하고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형식이 고아로서 박진사의 도움을 입어 공부하고 영채와 정혼한 사이가 되는 부분은 영채의 서사에 종속되며 박진사의 집을 떠난 이후 일본 유학을 하고 경성학교 영어교사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과정은 지극히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따라서 형식의 서사는 작중의 현재, 다시 말해 그가 선형의 가정교사로 초빙되는 대목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그 지점에서 형식은 스스로의 서사를 이루는 중심인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표에 열거된 서술부의 속성에 따라 단락들을 배열하면 ‘상태-동작-동작-상태-동작-동작-상태-동작’이 된다. 그러한 배열에서 단락들 간의 접속 논리를 조사하고 동일성에 비추어 간소화하는 절차를 거치면 ‘상태∧동작’이라는 최소 형태로 환원된다.⁶⁾

6) 최소 형태로 환원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begin{array}{c}
 \text{상태} \wedge \text{동작} \vee \text{동작} \vee \text{상태} \wedge \text{동작} \vee \text{동작} \wedge \text{상태} \wedge \text{동작} \\
 \wedge \qquad \qquad \qquad \wedge \\
 \text{상태} \wedge \text{동작} \wedge \text{동작} \wedge \text{상태} \wedge \text{동작} \wedge \text{동작} \\
 \text{동작} \qquad \qquad \wedge \qquad \qquad \text{동작} \\
 \text{상태} \wedge \text{동작} \wedge \text{동작}
 \end{array}$$

형식의 서사는 그 최소 형태가 분화되고 확대되어 조성되는 것이다. 한편 그 최소 형태에서 ‘상태’ 항목은 형식이 영어교사로서 신분상승을 이룬 단락 1)에 해당한다. 고아 출신인 형식에게 영어교사라는 신분은 성공이나 출세를 의미한다. 성공 혹은 출세에 연결되는 ‘동작’은 그러한 상태의 지속이나 확대가 된다. 따라서 ‘상태^동작’은 ‘성공-성공’ 혹은 ‘출세-출세’라는 의미로 충당된다. 의미 면에서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형식의 서사는 ‘행복-불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영채의 서사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영채의 서사가 부정의 논리로 짜인다면 형식의 서사는 긍정의 논리로 짜이는 셈이다.

형식의 서사는 그 구성 논리에서 뿐 아니라 서사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채의 서사와 차이를 드러낸다. 영채의 서사는 사건들의 계기적인 접속으로 구성되는 데 비해 형식의 서사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요소들이 서사의 진행에 개입한다. 위에 열거한 단락들 중 4)와 7)이 그 요소들에 해당한다. 상상은 정신의 활동으로서 실제 벌어진 사건일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정신의 활동이 서사의 구성에 참여하여 사건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형식의 서사에서 상상 부분을 덜어낸다면 사건들은 불연속적이 될뿐더러 개연성도 떨어진다. 형식은 영채와 재회한 후 그녀의 신분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영채가 평양에서 왔다는 기생 월향일 거라고 추측하는가 하면 그녀의 정조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어지러운 상상을 한다. 그러한 상상이 이튿날 형식으로 하여금 월향의 집을 찾게 하고 급기야 영채가 겁간 당하는 장소로 달려가도록 한다. 만일 형식이 영채를 두고 상상하는 대목이 빠진다면 사건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기 어렵다. 자살하러 떠난 영채를 찾아서 평양으로 갔던 형식이 중도에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와 선형과 약혼하는 과정도 사건들의 관계만으로는 개연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정혼한 여자가 자살한 다음 날 다른 여자와 약혼하는 것은 몰염치하기도 하거니와 두 사건이 곧바로 이어진다면 급작스럽거나 억지스러운 것이

다. 그런데 평양에서 돌아오는 밤차 안에서 광대한 우주를 두고 장황하게 펼쳐지는 형식의 상상이 두 사건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사건 전개 of 부자연스러움이 완화된다.

자기는 이제야 자기의 생명을 깨달았다. 자기가 있는 줄을 깨달았다.

마치 북극성이 있고 또 북극성은 결코 백랑성도 아니요 노인성도 아니요, 오직 북극성인 듯이, 따라서 북극성은 크기로나 빛으로나 위치로나 성분으로나, 역사로나 우주에 대한 사명으로나, 결코 백랑성이나 노인성과 같지 아니하고, 북극성 자신의 특징이 있음과 같이, 자기도 있고 또 자기는 다른 아무런 사람과도 꼭 같지 아니한 지와 의지와 사명과 색채가 있음을 깨달았다. 형식은 웃으며 차창으로 내다본다.⁷⁾

인용문은 형식의 우주적 상상력이 도달한 결론 부분이다. 형식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 형식에게 그러한 인식은 자유의 근거가 된다. 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형식이 창밖을 보며 웃음을 짓는 것은 그 자유를 반기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형식은 영채에 대한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곧바로 선형과 약혼할 수 있다. 따라서 거창하게 펼쳐지는 우주적 상상력이란 형식과 선형의 약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상상이 불연속적인 사건 사이를 매개하여 서사의 흐름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무정』에서 형식이 상상하는 장면이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⁸⁾ 거듭되는 상상 장

7) 이광수, 『무정』, 이광수 전집 1(삼중당, 1971), 118면. 앞으로 본문 인용의 경우 제목과 면수만 표기함.

8) 김동인은 형식을 ‘공상의 대가’라고 부르는데가 하면 “공상! 공상! 왜 작자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이러듯 공상 질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라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한다. 조남현도 『무정』에서 상상 장면이 과도하게 나오는 데 주목한 논자이다. 그 또한 “한 줄의 현실적인 행동이나 연사에 수십 줄의 공상이나 회상

면에 의해 인물의 통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건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요컨대 상상 장면들은 『무정』의 군더더기이자 중요한 결함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그 같은 비판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상이 서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경우 상상은 서사 구성에 필수 요소가 된다. 상상이 사건처럼 기능하면서 서사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형식의 서사를 영채의 서사와 구별하도록 하는 뚜렷한 특징이다. 영채의 서사는 사건들의 연쇄로 구성되고 사건들 간의 관계로부터 개연성을 마련한다. 그에 비해 형식의 서사에서는 상상이 사건과 동일한 자격으로 사건들 사이에 개입하며 사건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 상상에 의해 개연성이 획득되기도 한다.

상상이 서사의 구성 단락으로 기능하는 사례는 『무정』 이전의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경우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등장인물의 정신적 반응 정도이며 ‘생각하다’ 류의 서술부로 정리된다.⁹⁾ 그러나 『무정』에서는 상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상상이 서사의 수준에서 사건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의 사건화는 형식의 서사를 영채의 서사와 구별시키는 특징일 뿐 아니라 『무정』과 이전 소설을 가르는 지

이 따라다니다 보면 인물의 생동감은 말할 것도 없고 작품 전체의 리얼리티도 무산되기 쉬운 것이다”고 하면서 『무정』에서 펼쳐지는 상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동인, 앞의 책, 104면; 조남현, 『『무정』의 구성방법』, 문학사상 49호 (1976. 10), 364-365면.

- 9) 이와 관련하여 김영민의 소론을 인용한다. “1910년대에 들어 새롭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소설적 요소는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한 관심이다. 그런데 1910년대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한 관심이란 인간 심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님은 물론,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1910년대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간 심리에 대한 관심은 현실적인 삶의 조건들의 결핍감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소설보다 진전된 형태인 1910년대 소설에서도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은 사건들에 대한 정신적 반응의 수준에 머문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술출판사, 1997), 349면.

표이기도 하다. 그것은 가히 ‘상상의 발견’이라고 부를 만한 소설사적 사건이다.

『무정』 전반부의 영채 부분과 형식 부분은 서사의 구성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서사를 본문으로 실현하는 담론의 작용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된다. 그 각각의 서사에 다르게 작용하는 담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 사건 서술과 내면 서술

서사를 간단히 정의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당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모종의 연술 방식을 통해 사건들의 의미 작용을 가능케 한다. 담론은 그러한 의미 작용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칭하는 술어이다. 담론의 작용에 의해 서사는 소설로 실현되는 것이다. 소설에서 서사를 전제하지 않고서 담론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담론을 통하지 않고서 서사를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소설을 온전히 이해하자면 마땅히 서사와 담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¹⁰⁾

서사에 대한 담론의 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사건 서술이다. 사건 서술은 그 수행 양상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사건들을 통시적

10) 소설 본문을 서사와 담론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서사 이론의 기본 전제이다. 켈러는 서사 이론가들마다 그 나름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지만 “이런 이론가들이 동의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서사 이론은 내가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과 ‘담론’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스토리는 담론으로 표명되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행위와 사건을 말하고 담론은 사건의 서사적 재현일 말한다”고 하면서 서사 이론의 기본 전제에 대해 설명한다. 인용문의 ‘스토리’ 대신 이 글은 ‘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Jonathan Culler, *The Pursuit of Sig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pp. 169-170

인 순차에 따라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그 중 최저 수준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담론을 가리켜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로 부르기로 한다. 신화나 전설, 민담, 고전소설과 같은 근대 이전의 서사체들은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 서사체들이 사건 중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그러한 담론 수행과 관련된다. 『무정』에서 영채의 담론 또한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의 수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

벌써 십유여 년 전이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남으로 십여 리 되는 동네에 박 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십여 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 읍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

그때 박 진사의 딸 영채의 나이 열 살이니 지금 꼭 열아홉 살일 것이다.

박 진사는 남이 웃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영채를 학교에 보내며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는 소학, 열녀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열두 살 되던 해 여름에는 시전도 가르쳤다.¹¹⁾

형식과 재회하기 전까지 영채의 서사를 이루는 사건들은 담론에 의해 대부분 인용문처럼 구현된다. ‘벌써 십유여 년 전’이라는 구절이 지시하는 바대로 서사와 담론은 시간적으로 서로 동떨어져 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 시간의 경과를 두고 추후에 서술되는 것이다. 아울러 영채의 성장과 고난의 사건들은 통시적인 순서대로 소개된다. 소설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배반하는 사건 배열은 흔히 목도된다. 담론이 모종의 주제나 효과를 위해 시간의 순차와 다르게 사건들을 배열함으로써 빚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영채의 서사로부터 구현된 본문의 부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담론이 사건을 단순히 보고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탓에 사건들이 통시적인 발

11) 『무정』, 21-22면.

생 순서에 따라 서술되는 것이다.

담론의 수행이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로 제한됨에 따라 인물은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능적 존재로 제시된다. 영채의 내면 심리보다는 행동이 주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채는 사색하는 존재가 아닌 행동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그녀는 거둬지는 불행과 고난 속에서 삶이 전락하는 경로를 마치 주어진 소임을 실천하듯 주저 없이 밟아간다. 사건들은 미리 정해진 운명처럼 벌어지고 그녀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처럼 행동한다. 그녀의 행동이 신념의 실천으로 비쳐지는 까닭은 심리보다 행동에 주목하는 서술 때문이다.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짐으로써 행동의 주체는 내면의 고민이나 갈등이 없는 인물로 파악된다. 다음의 사례처럼 더러 영채의 생각이 서술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확고한 신념을 전달할 뿐이다.

영채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선한 세상도 있기는 있고 선한 사람도 있기는 있건만, 자기는 무슨 운수로 일시 그 선한 세상을 떠나고 선한 사람을 떠난 것이니, 일생에 반드시 자기는 그러한 세상과 사람을 찾을 날 있으리라고.

그러므로 그가 남대문 안에서 동대문까지 늘어선 만호 장안을 볼 때에, 이중에 어느 집이 칠 년 전에 자기가 있던 집과 같은 집이며, 종로 네거리에 왔다갔다하는 여러 만 명 사람을 대할 때에 이중에 어떠한 사람이 일찍 자기가 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하였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자기에게 가까이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마음에는 항상 ‘너는 나와는 딴세계 사람!’ 하고 일종 경멸하는 모양으로 그네를 대하여 왔다.

영채는 장안에 선한 집과 선한 사람이 있는 줄을 믿는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그 집과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영채의 기억에 있는 선한 사람은 오직 이형식이다.

영채가 칠 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의 남자를 대하되, 오히려 몸을 허하지 아니하고 주야 일년에 이형식을 찾으려 함이 실로 이 뜻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형식이 서울에 있는 줄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다. (밑줄-인용자)¹²⁾

인용문에서 ‘생각하였다는’ ‘믿는다’를 거쳐 ‘주야 일념’으로 이어진다. 내면을 내면으로서 그리려면 정신의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 영채가 겪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믿는다’와 ‘주야 일념’이 표명하는 바는 과정이라기보다 결과로서의 신념이다. 그러한 신념에는 회의나 불안의 그림자가 추호도 드리워 있지 않다. 따라서 인용문은 영채의 내면을 드러내기보다 그녀가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영채의 신념은 사건 서술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영채의 서사에 작용하는 담론의 특성은 지각의 초점이나 대화문을 통해서도 고찰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에 한정되는 담론의 특성은 이 정도로 충분히 드러났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상술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지각의 초점이 사건의 외부에 마련되고 인물들 간의 대화는 사건 서술에서 인용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담론이 서술적 제시를 기조로 하는 탓에 사건이 장면을 통해 극적으로 재현되지 않으며 대화도 장면 속에 현존하기보다는 서술의 구성 요소로 인용되는 것이다.

형식의 서사를 구현하는 담론은 단순히 사건을 서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담론은 그보다 다채롭고 적극적으로 수행된다. 담론은 시간적으로 서사에 근접하고 지각의 초점은 사건의 내부에 마련된다. 사건은 묘사를 통해 장면으로 재현되고 인물들 간의 대화는 장면 속에 현존한다. 서술적 제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데 비해 극적 재현이 담론의 뚜렷한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형식은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부인과 선형이도 답례를 한다. 부인은 형식을 보며,

“제 자식을 위하여 수고를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젊으신 이가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참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하고 형식은 잠깐 고개를 들어 부인을 보는 듯 선형을 보았다.

선형은 한결음쭈 그 모친의 뒤에 피하여 한편 귀와 몸의 반편이 그 모친에게 가리었다. 고개를 숙였으매 눈은 보이지 아니하나 난대로 내어버린 검은 눈썹은 하얗고 널찍한 이마에 뚜렷이 춘산을 그리고 기름도 아니 바른 까만 머리는 언제 빳았는지 흐트러진 두어 올이가 불그레한 복숭아꽃 같은 두 뺨을 가리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느적하느적 꼭 다문 입술을 때리고, 깃 좁은 가는 모시 적삼으로 혈색 고운 살이 몽롱하게 비치며, 무릎 위에 걸어놓은 두 손은 옥으로 깎은 듯 불빛에 대면 투명할 듯하다.¹³⁾

독서행위에 대해 본문이 불러일으키는 박진감의 정도는 서사와 담론의 시간적 간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박진감은 서사와 담론이 시간적으로 근접할수록 증대되는 데 반해 양자가 서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영채의 서사에 대한 담론의 관계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시간적 경과를 두고 서술이 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담론은 사건에 임재하며 사건과 더불어 수행된다. 지각의 초점은 사건 내부의 인물들 사이에서 유동하고 그에 따라 인물들이 순차로 지각된다. 형식은 부인의 시선을 통해, 선형은 형식의 시선을 통해 보이는 것이다. 특히 선형의 모습은 초점 인물인 형식의 시선을 통해 지각될 뿐 아니라 그의 내면 독백에 의해 자세히 묘사된다. ‘까만 머리는 언제 빳았는지’나 ‘불빛에 대면 투명할 듯하다’ 같은 구절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선형에 대한 묘사는 담론의 매개를 거쳤다가보다 형식의 내면 독백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아울러 대화는 서술적 제시 속에 인용의 형태로 포섭되기보다는 장면 속에 현존한다. 영채에 관한 담론에서 대화가 서술적 제시 속에 인용되는 사례를 들어 위의 사례와 비교하기로 한다.

13) 『무정』, 18면.

기생이란 다 좋은 처녀들이어니 하였다. 더구나 그 기생들은 다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아는 것을 보고, 기생들은 다 공부를 잘한 처녀들이라 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저는 결심하였습니다. 저도 기생이 되렵니다. 저도 글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버지를 구하려 합니다.”

하고, 영채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일종의 자랑을 감각하였다. 그 사람은 영채의 등을 어루만지며,

“참 기특하다. 효녀로다. 그러면 네 뜻대로 주선하여 주마.”

하였다.

이리하여 영채는 기생이 된 것이다. 영채는 결코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요, 행여나 늙으신 부친을 구원할까 하고 기생이 된 것이라.¹⁴⁾

인용문에서 대화는 특정한 장면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영채가 기생이 되기까지의 자초지종을 서술하는 중에 직접 화법으로 인용된 것이다. 따라서 그 대화는 장면을 재현하는 대화와 성격이 다르다. 형식이 선형의 가정교사로 초빙되어 김장로 부부와 인사하고 선형을 대면하는 사건은 묘사와 대화에 의해 장면으로 구성된다. 그 경우 대화의 시공간적 좌표는 뚜렷하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대화는 사건 서술의 한 맥락으로 기능하며 그 시공간적 좌표도 모호하다. 형식의 담론과 영채의 담론 사이의 차이는 대화의 사용 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무정』의 담론은 영채보다 형식의 서사에 대해 다채롭게 구사된다. 그로 인해 본문 중에서 형식의 부분이 영채의 부분보다 박진감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획득한다. 두 서사에 대해 다르게 작용하는 담론에 의해 빚어진 효과이다. 한편 형식의 부분에서 담론은 사건을 극적으로 재현할 뿐 아니라 형식의 내면을 서술하기도 한다. 형식의 내면은 주로 화자에 의해 분석되지만 자유간접화법이나 내적 독백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한 내면 서술에 의해 형식은 상상의 주체가 되고 상상의 재료들인 각종 관념들은 그의 내면에

14) 『무정』, 37면.

서 교차한다. 개화와 전통, 정신과 욕망, 이상과 현실 등이 상상을 통해 내면에 출몰함에 따라 형식의 성격은 중복 결정된다. 기존의 논의에서 형식은 우유부단하고 쫓대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비판된다. 영채와 선형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가 하면 지사로 자처하다가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로 돌변하는 등 형식은 『무정』 전반에 걸쳐 서로 모순을 빚는 여러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형식의 상상은 사건처럼 기능하면서 서사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식의 상상을 공연한 사족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상 에 의해 형식의 내면은 여러 상충하는 관념들의 토론장이 되고 그로써 서사의 방향이 모색된다. 형식의 상상이 지닌 그러한 가치를 이해한다면 그의 성격을 『무정』의 결함이 아닌 특징으로 평가할 만하다. 상상에 의해 성격이 중복 결정되는 과정을 통해 형식은 고전소설의 주인공뿐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영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개성적인 인물로 부각된다. 물론 장황하고 번잡스런 내면 서술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서술이 거두는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내면 서술은 형식의 성격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펼치는 상상이 서사의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효과는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상은 정신의 현상이어서 그 스스로 사건 노릇을 하기 어렵다. 그것이 사건이 되자면 담론의 작용이 밀받침되어야 한다. 형식의 경우 담론은 서사를 극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내면 서술을 통해 상상을 사건화 함으로써 서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담론의 매개를 통해 상상이 서사의 구성 요소로서 사건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상상이 사건과 같은 가치를 획득할 정도로 담론의 수행은 적극적이다. 사건 서술의 차원에 머무는 담론은 서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에서 담론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영채의 서사에 대한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이 서사에 대한 담론의 종속적인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형식의 서사에 대한 담론의 관계는 그와 양상이 다르다. 담론이 사건을 추수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담론에 의해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담론에 의해 상상이 사건화 되어 서사의 구성 단락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채의 경우는 서사가 담론을 주도하는 데 반해 형식의 경우는 담론이 서사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서사에 대한 담론의 주도적 관계는 상상의 서사화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4. 지양과 통합

『무정』은 연재 85회분까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 하나의 축이 영채라면 형식은 다른 축의 중심인물이다. 영채와 형식으로 대표되는 두 개의 축은 서사의 구성 방식이나 담론의 작용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며 『무정』 전반부에서 대립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86회부터 양자 사이에 통합이 벌어진다. 통합은 형식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영채 부분이 서사와 담론의 면에서 형식 부분에 의해 지양되어 형식 중심의 방향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선행 연구에 의해 ‘영채의 부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86회 연재분에서 시작된다.

이제 영채의 말을 좀 하자. 영채는 과연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헤치고 용궁의 객이 되었는가.

독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영채의 죽은 것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신 이도 있을지요, 고래로 무슨 이야기책에나 나오듯, 늦도록 일점 혈육이 없던 사람이 아들 아니 낳은 자 없고, 아들은 낳으면 귀남자 아니 되는 법 없고, 물에 빠지면 살아나지 않는 법 없는 모양으로, 영채도 아마 대동강에 빠지려 할

때에 어떤 귀인에게 건짐이 되어 어느 암자의 중이 되어 있다가 장차 형식과 서로 만나 즐겁게 백년간약을 맺어, 수부귀 다남자하려니 하고, 소설 짓는 사람의 줌된 솜씨를 넘겨보고 혼자 웃으신 이도 있으리다.

혹 영채가 빠져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영채가 평양으로 간 것을 칭찬하신 이도 있을지요, 빠져 죽을 까닭이 없다 하여 영채의 행동을 아깝게 여기실 이도 있으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독자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바와 내가 장차 쓰려 하는 영채의 소식이 어떻게 합하여 틀릴지는 모르지마는, 여러분의 하신 생각과 내가 한 생각이 다른 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 있는 일일 듯하다.¹⁵⁾

영채는 김현수와 배명식에게 봉변을 당한 후 대동강에 투신자살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난다. 그 이후 영채의 행방을 서술하기에 앞서 작가가 이례적으로 문면에 돌출하여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 ‘고래로 무슨 이야기책’이라는 구절이 지시하듯 작가는 그 자신이 고전소설의 관례에 대해 매우 익숙하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린다. 아울러 독자가 앞으로 전개될 영채의 이야기를 그러한 관례에 따라 짐작하는 것을 경계한다. 고난과 위기를 거쳐 ‘수부귀 다남자’로 이어지는 사건 전개를 ‘소설 짓는 사람의 줌된 솜씨’로 비판한 데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작가는 고전소설의 관례를 반성하면서 영채의 후일담을 그와 다르게 전개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사건 전개와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밝힘으로써 작가는 그때까지 영채의 이야기가 고전소설의 관례를 따랐다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한 셈이 된다. 독자가 추후의 사건 전개를 미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고전소설의 관례가 충실히 수행되었다는 자의식이 작가로 하여금 굳이 문면에 정체를 드러내고서 발언하도록 한 것이다. 작가는 전과 다르게 전개될 영채의 후일담에 대해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독자에게 권한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소설 쓰기의 방식이 관건이 된다. 『무정』이

15) 『무정』, 149면.

85회까지 영채와 형식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영채의 축을 부정하고 나면 형식의 축이 남는다. 따라서 영채의 후일담이 서사와 담론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형식의 방식이 된다. 영채의 부분이 형식 쪽으로 지양 통합되는 것이다.

영채가 평양행 열차에서 만난 병욱은 그러한 지양과 통합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병욱은 영채의 자살 계획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역설하면서 여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영채가 구습에 얽매어 사랑하지도 않는 형식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판된다. 그런데 영채가 자살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병욱의 주장은 기실 형식의 생각을 옮긴 것이다.

① 여자도 사람이지요. 사람일진대 사람의 직분이 많겠지요.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여자의 직분이지요. 또 혹은 종교로, 혹은 과학으로, 혹은 예술로, 혹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일로 인생의 직분을 다할 길이 많겠지요. 그런데 고래로 우리 나라에서는 남의 아내 되는 것만으로 여자의 직분을 삼았고, 남의 아내가 되는 것도 남의 뜻대로, 남의 말대로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여자는 남자의 한 부속품, 한 소유물이 되려 하였어요. 마치 어떤 물품이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모양으로...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도 되려니와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채 씨께서 할 일이 많지요. 영채 씨는 결코 부친과 이 씨만을 위하여 난 사람이 아니외다. 과거 천만대 조선과, 현재 십육억 동포와, 미래 천만대 자손을 위하여 나신 것이야요. 그러니깐 부친께 대한 의무 외에, 이 씨께 대한 의무 외에도 조상께, 동포에게, 자손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채 씨가 그 의무를 달치 아니하고 죽으려 하는 것은 죄외다.¹⁶⁾

② 영채는 과연 부모에게 대하여 효하지 못하였다. 지아비에게 대하여 정(貞)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도 자기의 의지로 그러한 것이 아니요, 무정한 사회가 연약한 그로 하여금 그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설혹 영채가 자기의 의지로 효와 정에 대하여 생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

16) 『무정』, 153-154면.

였다 하자. 그렇다 가정하더라도 영채는 생명을 끊을 이유가 없다. 효와 정은 영채의 생명의 의무 중의 둘이니, 설혹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분은 전체보다 작으니, 이 두 의무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아직도 영채의 생명에는 백천 무수(百千無數)의 의무가 있다.

그의 생명에는 아직도 충도 있고, 세계에 대한 의무도 있고, 동물에 대한 의무도 있고, 산천(山川)이나 성신(星辰)에 대한 의무도 있고, 하느님이나 부처에 대한 의무도 있다.¹⁷⁾

①은 병욱이 영채에게 하는 말이고 ②는 영채의 유서를 읽고 난 뒤 형식에게 떠오른 생각이다. 두 인용문은 사용하는 어휘가 서로 다를 뿐 그 저변의 뜻은 동일하다. 영채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형식에 대해 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영채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결과이며 영채는 부친과 형식 외에도 세상에 대해 더 많은 의무가 있으므로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의 생각을 병욱이 영채에게 대신 전하는 관계로 ①과 ②는 서로 연결되는 셈이다. 병욱은 형식의 대리인으로서 이른바 ‘영채의 부활’을 추진한다. 비록 병욱은 형식을 비방하지만 사고의 면에서는 형식과 같은 입장이며 영채의 자살을 막음으로써 형식에게 면죄부를 준다. 영채가 자살한다면 형식은 은인의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병욱이 영채를 구원하여 황주로 데려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식을 돕는다. 영채는 황주에서의 생활을 통해 심적인 안정을 되찾은 후 형식과 재회한다. 영채는 병욱과 함께 일본 유학을 위해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형식이 약혼녀인 선형을 동반하고 그 열차에 오르면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열차는 삼랑진에서 수해를 만나 정차하고 형식 일행의 주도로 수재민 돕기 자선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열린다.

영채가 병욱을 만난 이후 『무정』의 서사는 ‘행복, 행복’을 바탕으로

17) 『무정』, 98면.

구성되며 영채와 형식의 내면이 서사의 구성 요소로서 사건처럼 기능한다. 서술은 사건에 근접하고 지각의 초점을 사건 내부의 인물들에게 둬으로써 장면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담론이 수행된다. 『무정』 후반부의 서사와 담론이 온전히 형식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요컨대 서사와 담론의 면에서 서로 대립하던 영채와 형식은 형식 중심으로 통합된다. 영채의 부분이 고전소설의 연장선상에 자리한다면 그 관례에서 벗어난 형식의 부분은 근대소설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정』은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이 대립하다가 근대소설로 마무리되는 소설사적 전환의 과정을 그 스스로 내장한다. 전반부에 병존하는 고전소설의 요소로 인해 『무정』은 근대소설에 미달인 상태로 출발하지만 후반부를 통해 근대소설에 도달하여 끝이 난다. 『무정』이 문제적인 것은 그 한편 안에 근대소설을 향한 운동 과정이 고스란히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 과정의 도달점이 지닌 가치로 인해 『무정』은 근대소설로서 그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무정』 전반부에는 영채와 형식으로 대표되는 두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 『무정』의 서사와 담론은 그 두 개의 중심에 대해 각각 다른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 우선 서사의 면에서 보자면 영채의 서사는 사건들이 이접과 연접의 논리로 접속되어 구성되며 ‘행복-불행’의 의미로 충당된다. 형식의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영채의 그것과 유사하며 의미 면에서는 ‘출세-출세’의 구조이다. 다만 형식의 서사를 이루는 단락들 중에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면서 사건처럼 기능하는 것들이 있다. 상상이라는 정신의 현상이 바로 그것들이다. 상상이 서사의 구성에 참여하여 사건처럼 기능한다는 점에서 형식의 서사

는 영채의 서사와 구별된다. 영채의 서사는 사건들의 계기적 접속에 의해 구성되고 사건들의 관계로부터 개연성이 마련된다. 그에 비해 형식의 서사는 사건들의 계기적 접속에 의해서 뿐 아니라 상상이 사건과 동일한 자격으로 사건들 사이에 개입하여 구성되기도 한다. 개연성이 사건들 간의 관계가 아닌 상상으로부터 획득된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무정』의 담론은 영채의 서사와 형식의 서사에 대해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담론은 사건을 단순히 보고하는 수준에서 영채의 서사를 본문으로 실현한다. 그러나 형식의 서사에 대한 담론의 수행은 그보다 다채롭고 적극적이다. 담론에 의해 장면이 극적으로 재현되고 형식의 내면이 서술되기도 한다. 특히 형식의 상상은 내면 서술을 통해 서사의 구성 요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담론이 사건을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가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영채의 경우라면 형식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담론이 서사를 주도한다.

『무정』의 전반부에서 대립하던 영채 부분과 형식 부분은 후반부에서 형식 중심으로 통합된다. 양자 간의 통합은 형식의 대리인격인 병옥이 자살하려던 영채를 구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사와 담론의 면에서 영채 쪽이 고전소설의 관계를 따른다면 형식 쪽은 근대소설다운 속성을 지닌다. 그러한 양자가 형식 중심으로 통합됨으로써 『무정』은 근대소설로 진입한다. 『무정』은 고전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시작하여 근대소설로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전환 과정을 그 한 편 안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무정』을 근대소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본문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지닌 가치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상과 같다. 삼랑진 수해 사건 이후 주요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세상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날로 아름다워진다. 『무정』은

그처럼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무정』의 행복한 결말과 식민지 현실 사이에는 부연 설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괴리가 가로 놓인다. 『무정』에서 식민지 현실은 “인생 또는 사회의 실상도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욕망의 환상도’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¹⁸⁾ 『무정』이 비록 소설 문법의 면에서 근대적인 성취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욕망의 환상도’를 제출하는 수준에 머무는 한 인식의 진정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욕망의 환상도’에 멈춘다는 것, 『무정』의 한계는 다름 아닌 거기에 있다. ◆

주제어 : 고전소설, 근대소설, 내면, 담론, 사건, 상상, 서사, 서술

18) 송하춘,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36면.

참고문헌

이광수, 이광수 전집 1, 삼중당, 1971.

김경수, 『현대소설의 형성과 집탈』, 한국 현대문학의 근대성 탐구, 문학과 비평연구회 편, 새미, 2000.

김동인, 김동인 평론전집, 김치홍 편, 삼영사, 1984.

김열규, 『이광수 문학의 문법: 담화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국학자료원, 1994.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199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류철균, 『욕망의 근대적 형식』, 문학과 사회 1992, 봄.

서영채, 『<무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송하춘,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조남현, 『『무정』의 구성방법』, 문학사상 49호, 1976. 10.

한승옥, 이광수 연구, 선일문화사, 1984.

Culler, Jonathan, *The Pursuit of Sign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1.

Barthes, Roland, *Critique et Vérité*, Paris: Seuil, 1966, pp.57-69.

【 】

이 논문은 『무정』의 서사와 담론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무정』에는 영채와 형식으로 대표되는 두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 두 개의 중심은 서사의 구성이나 담론의 수행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우선 서사의 면에서 보자면 영채의 서사는 사건들의 계기적 접속으로 구성되며 사건들 간의 관계로부터 개연성이 마련된다. 그에 비해 형식의 서사는 사건들의 계기적 접속 뿐 아니라 상상에 의해 구성되기도 한다. 상상이 사건처럼 기능하면서 서사를 구성하고 상상에 의해 개연성이 획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형식의 서사는 영채의 서사와 구별된다.

『무정』의 담론은 영채의 서사와 형식의 서사에 대해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 담론은 사건을 단순히 보고하는 수준에서 영채의 서사를 본문으로 실현한다. 그러나 형식의 서사에 대한 담론의 수행은 그보다 다채롭고 적극적이다. 담론에 의해 장면이 극적으로 재현되고 형식의 내면이 서술되기도 한다. 특히 형식의 상상은 내면서술을 통해 서사의 구성 요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담론이 사건을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가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영채의 경우라면 형식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담론이 서사를 주도한다.

『무정』의 전반부에서 대립하던 영채 부분과 형식 부분은 후반부에서 형식 중심으로 통합된다. 양자 간의 통합은 형식의 대리인격인 병옥이 자살하려던 영채를 구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사와 담론의 면에서

영채 쪽이 고전소설의 관례를 따른다면 형식 쪽은 근대소설다운 속성을 지닌다. 그러한 양자가 형식 중심으로 통합됨으로써 『무정』은 근대소설로 진입한다. 『무정』은 고전소설의 면모를 지니고 시작하여 근대소설로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전환 과정을 그 한 편 안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무정』을 근대소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지닌 가치 때문이다.

【Abstracts】

Narrative Discourse for Imagination

by Kang, Heonguk*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narrative or discourse of *Mujeong*(무정). As previous studies on *Mujeong* pointed out, there are two representative central figures, Yeong-chae and Hyeong-sik.

For now, in the narrative phase, the narrative of Yeong-chae is consisted of the sequential connection of the occurrences, and the probability of that narrative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occurrences. In comparison with it, the narrative of Hyeong-sik is consisted of, not only the sequential connection of the occurrences but Hyeong-sik's imagination. That is, in this case, imagination functions as occurrence and then makes some parts of narrative. And the probability of narrative is obtained by imagination. So it is the difference of the narrative of Hyeong-sik from that of Yeong-chae.

The discourse of *Mujeong* differently operate on the narrative of Hyeong-sik or that of Yeong-chae. Discourse realize the narrative of Yeong-chae as text by simply reporting occurrences. But in the case of Hyeong-sik, discourse operates more positively and diversly. For example the scene realize dramatically, or the inside of Hyeong-sik is described. Particularly the imagination of Hyeong-sik can function as the element of narrative by inside description. Discourse, in this case, realize narrative, and furthermore it makes narrative. So in the cas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of Yeong-chae, narrative leads discourse, but in the case of Hyeong-sik, the situation reversed and discourse leads narrative.

In the first half of *Mujeong*, the part of Yeong-chae centered is confronted with that of Hyeong-sik centered, but in the second half, they are unified into the direction of Hyeong-sik centered. This unification of the two parts of the text *Mujeong* is accomplished by Byeong-uk's rescuing Yeong-chae from suicide. Here, Byeong-uk takes the place of Hyeong-sik. As we consider both narrative and discourse of *Mujeong*, the part of Yeong-chae centered takes the convention of classical novel, but the part of Hyeong-sik centered has the properties of modern novel. So by that unification, *Mujeong* can advance to modern novel. Therefore *Mujeong* shows us the process of conversion of the history of novel. So, by all these argument, we can approve *Mujeong* as a modern novel.

Key Words : narrative, discourse, imagination, modern novel, classical novel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에 접수되어 6월 15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